

관세청장, 여행자·특송 마약밀수 N차 저지선 구축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

- 이종욱 관세청장, 인천공항 입국장 및 민간 특송물류센터(자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마약밀수 차단 'N차 저지선' 구축 현황 점검

이종욱 관세청장은 9월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방문하여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감시단속체계의 재설계 현황 및 필요 인력·장비 등을 점검하고, 일선 세관 현장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마약 밀수의 주된 경로 중 항공 여행자와 특송 분야 감시 단속체계 재설계 추진 상황 및 보완사항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

< 항공 여행자 및 특송분야 마약 밀수 적발 현황 >

(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6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항공여행자	112	36,155	177	148,099	198	139,687	623	279,455	509	174,734	79	23
특송화물	197	225,776	193	274,681	235	391,774	306	273,479	120	163,577	△32	△1

< 여행자 >

신변·휴대품에 대해서는 입국장 세관 검사대에서 이뤄지는 기본 검사에 더해 입국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2개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한 축은 우범항공편 탑승객을 입국심사 전 전수 검사하는 '착륙즉시 일제 검사'로 지난 7월부터 확대(인천공항 T1→T2) 시행 중에 있다.

다른 한 축으로는 휴대품만 소지한 우범여행자를 선별하여 입국심사 직후 불시에 검사하는 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신체 은닉 등 밀수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휴대품만 소지한 경우 검사 선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입국심사 직후 신변·휴대품에 대한 불시 선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과 최첨단 검색장비(밀리미터파검색기) 확보를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기탁수하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100% 엑스레이(X-ray) 검색에 더하여, 9월부터 우범항공편 탑승객 대상 복수판독*을 개시하였다. ‘27년 인천공항 통합판독센터 구축 등으로 복수판독 실시 우범항공편 수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하나의 영상을 두 명의 판독자가 상호보완적 시각에서 판독

< 특송 >

특송의 경우, 마약 등 위해물품을 촘촘하게 차단하기 위해 우범국발 반입 화물에 대해 별도의 엑스레이(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반기 수시직제로 증원한 판독 인원을 활용하여 집중판독(판독 시간 3초→7초)을 시행 중이며, 복수판독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향후에는 이차 저지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체시설(민간 특송물류센터)의 경우 세관 특송물류센터 원격판독에 더해 자체시설에 상주하며 판독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세관 직원이 자체시설에 상주하며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현장에서 개장 검사하는 체계를 위한 인력 확보도 계획 중이다. 이를 통해 마약밀수에 대한 세관 감시망을 강화한다.

* 하나의 영상을 두 명의 판독자가 2개의 모니터로 개별 판독

이종욱 관세청장은 “2차 저지선 구축을 완료한 국제우편 등에 이어 주요 밀수 경로인 여행자, 특송 분야도 재설계가 긴요한 상황”이라며, “관세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N차 저지선 구축에 대해서는 인력, 예산 등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여행자)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책임자	과 장	김승민 (042-481-7820)
		담당자	사무관	안진우 (042-481-7831)
담당 부서 (특송)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류승하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김순남 (042-481-7835)